

닷새사진관

S#1 학교/오후

쨍쨍한 여름날의 날씨가 교실을 비춘다. 햇빛에 눈이 따가운 듯 찡그리더니 커튼을 살짝 젖히는 여민. 커튼은 뜨거운 바람에 계속 넘실댄다. 교실엔 반 아이들이 앉아 수학 수업을 듣고 있다. 여민은 턱 한 쪽을 괴고 멍을 때리며 시간을 보낸다.

(NAR) 여민: 내 생을 그래프로 표현하자면, 가장 쉬우면서, 간단한 모양이 나올 것이다. 그 일을 겪은 후, 더 이상 변화란 건 의미가 없어졌으니까.

교과서에 무언가를 적어내려가는 예민. 머리카락에 가려 보일 듯 말 듯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title: 닷새사진관(가제)

S#2 현관문/오후

여민의 집 우편함에 우편물이 가득 차있다. 여민은 한숨을 내쉰다.

여민: 하... 이게 대체 몇 통째야?

잔뜩 찡그린 표정으로 우편함을 연다. 우편함에선 소포들이 쏟아져나온다. 여민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듯 소포를 하나 집어 읽어본다.

여민: 당신의 삶을 기록하는 특별한 사진관 '닷새사진관'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행운의 편지 같은 건가? 무시해도 자꾸 오네.

여민은 쏟아져나온 소포를 뒤로 한 채, 엘리베이터를 타러간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여민. 집 앞에 놓여져있는 몇 십 장의 소포. 여민은 약간은 섬뜩한 기분을 느낀다.

여민: 닷새사진관...? 알았어요. 갈게. 간다고!

여민은 소포 하나를 집어 밖으로 나선다.

S#3. 길가/오후

여민은 소포에 그려진 약도를 보며 사진관을 찾아나선다.

여민: 이 동네에서 몇 년을 살면서 이런 데는 본 적이 없는데... 진짜 뭐하는 데야 여기?

의아하게 생각한 여민은 네이버에 '닷새사진관'을 검색해보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땀을 뻘뻘 흘리며 약도를 보고 도착한 닷새사진관. 우편물과 사진관을 번갈아보는 여민. 초라한 외관에 망설이지만 이내 여민은 무언가에 강하게 이끌리듯 사진관 안으로 들어간다.

S#4. 사진관/오후

'딸랑' 소리에 직원 두 명이 마치 기계처럼 나타나 말한다.

직원 1, 2: 어서오세요. 당신의 기억 속 순간을 기록합니다. '닷새사진관'입니다.

여민: 닷새사진관...? 진짜 있는 곳이었어...?

여민은 두리번거리며 사진관을 둘러본다. 사진관은 평범한 사진관처럼 잘 꾸며져 있지만, 하나 매우 특이한 점이 있다. 스튜디오에 영정사진 띠가 둘러져 있는 것이다.

여민: (직원을 바라보며) 저... 근데

직원 1: 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민: (검은 띠로 둘러져있는 스튜디오를 가리키며) 사진... 저 검은 띠는 뭐예요?

직원 1: 네? 고객님 혹시 어떻게 오셨어요?

여민: 아... (직원에게 초대장을 건네며) 이거 받고 왔어요.

직원 1은 허둥대며 서랍 속을 이리저리 찾아보다, 직원 2를 부른다.

직원 2: 아 네, (말을 더듬으며) 공여민 님? 맞나요?

직원 1이 어리둥절해하며 직원 2, 여민을 번갈아 쳐다본다.

직원 2: 앤 아니잖아.

직원 1: 아, 웬지 너무 어린 애가 왔다 했어.

직원 1, 2의 대화가 오가는 사이, 여민은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단정히 하고, 옷매무새를 정리한다.

직원 2: 준비는 다 되셨나요?

여민: (사진관을 둘러보며) 네! 근데... 이런 데서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직원 1: 아 네! 어차피... 배경은 안 써요.

직원 1: 이걸 뭐라 설명해야 하나... 암튼 이따 사진 받아보면 알 거예요.

여민은 카메라 앞에 선다.

직원 1: 찍을게요!

'찰칵' 소리와 함께 검은 화면이 나오고, 여민은 서서히 눈을 뜬다.

S#5. 사진관 / 해질녘

잠깐 사진을 찍은 것뿐이지만 오랜 잠에서 깨어난 듯 눈을 뜨는 여민.

직원 1: 사진 나왔습니다!

직원이 여민의 손에 쥐어진 네 컷으로 나뉘어진 사진과, 소포로 잘 포장되어있는 사진 하나. 네 컷으로 나뉘어진

사진엔 세 컷만 채워져있고, 나머지 한 컷은 텅 비어있다.

첫 번째 컷은 엄마와 여민이 주방에서 요리하는 화목한 모습이 있다.

두 번째 컷은 사춘기가 온 여민과 다투고 난 뒤, 우는 엄마의 모습이 담겨있다.

세 번째 컷은 엄마가 돌아가시고, 엄마의 사진을 보고 울고 있는 여민이 보인다.

마지막 컷은 아무것도 찍혀있지 않다.

S#6. 집 / 오전

창창히 밝은 날, 여민과 엄마는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다.

여민: 엄마, 나 뭐할까?

엄마: 가만히 있어도 된다니까~

여민: 에이, 그래도!

엄마가 웃으며 요리하고, 여민은 옆에서 종알종알 이야기한다. 평화로운 둘의 모습.

S#7. 집 / 오후

여민: 엄마가 나한테 해 준 게 뭐가 있다고. 아빠 그렇게 된 것도 다 엄마 때문이잖아.

엄마: 너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여민: 틀린 말이 있어?

엄마: (여민을 내려치려는 손을 멈추며) 여민아...

여민은 못 들은 척하며 자신의 방으로 향하지만, 이내 나와 엄마가 있는 안방으로 간다. 안방 문 틈 사이로 엄마가 흐느끼는 것을 본 여민은 등을 돌려 다시 방으로 간다.

'찰칵' 소리와 함께 전환

S#8. 집 / 해질녘

엄마의 사진을 보며 말없이 눈물을 닦아내는 여민.

'찰칵' 소리와 함께 화면 전환 - 검정 화면

S#9. 사진관 / 밤

말없이 눈물을 닦아내는 여민. 사진을 든 여민의 떨리는 손.

여민: 근데... 마지막 컷은 왜 비어있어요?

직원은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한다.

직원 2: 세 번째 장 기억 이후로 기억에 깊게 남을만한 일이 없던 거겠죠?

힘이 빠진 채로 사진을 쳐다보는 여민.

직원 1: 학생. 다음에 올 땐 좋은 기억만 담은 사진 가져가요.

여민: 네... 감사합니다 정말.

직원 1, 2: 잘 가요!

여민: (나가려다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이) 어, 맞다. 저 계산 안 했어요.

직원 2: 아, 괜찮아요. 저희 사진관은 모든 사진을 무료로 찍어드립니다.

여민: 우와... 진짜요?

직원 1: (직원 2를 살짝 치며) 야, 어차피 죽을 사람도 아닌데 돈 받자.

직원 2: 그걸 받아서 뭐하냐. 여기 돈 어차피 쓰지도 못하는데.

직원 1: (코웃음 치며) 그래도. 기념품? 정도로...

의아한 대화 소리를 뒤로 여민은 사진관을 나간다. 여민이 사진관에서 나오자, 활짝 열린 문은 자동으로 굳게 닫힌다. 얼이 빠진 채로 몇 걸음 걸던 여민은 아차 싶어 뒤돌아보지만, 사진관은 이미 없어지고 난 후이다. 여민은 엄마와 함께 걸던 이 길에서의 추억을 떠올리며, 집으로 향한다.

S#10. 현관문 / 밤

여민의 집 우편함에 또 하나의 우편물이 와있다. '닷새사진관'에서 온 편지였다.

(편지 내용)

(V.O) "안녕하세요. 추억 속 순간을 기록하는 '닷새사진관'입니다.

닷새사진관의 바깥 모습이 보인다. 사람들이 닷새사진관을 지나쳐가고 있다.

(V.O) 저희가 드린 선물은 만족하셨나요? 저희는 단순히 '사진'을 선물하는 사진관이 아닙니다. 고객님의 추억, 사랑, 행복, 슬픔... 모든 것을 기록하죠.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나름 분주하게 일하는 모습.

직원 1: 당신의 기억 속 순간을 기록합니다. 어서오세요, 닷새사진관입니다.

(V.O) 고객님의 기억 속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였나요?

고객의 사진을 찍어주는 닷새사진관의 직원들.

(V.O) 자기 자신이 될 수도, 혹 없을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 당신의 추억 속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잘 살아왔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애쓰셨어요."

손에 사진, 소포를 꼭 쥐고 닷새사진관에서의 사진을 본다. 여민의 눈엔 왠지 모를 슬픔이 담겨있다.

편지를 읽는 여민의 눈엔 눈물이 고인다. 알 수 없는 사람이 준 편지인데도 여민을 눈물짓게 하는 이 편지의 출처는 '닷새사진관'이었다. 편지의 마지막 줄엔 이렇게 적혀있었다.

"당신의 기억 속 그 사람은, 당신을 분명 사랑했을 것입니다. 당신도 그의 기억 속 가장 큰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 닷새사진관은 사실에 기반한 이야기 이외의 것은 일체 하지 않습니다.)"

여민: 나의 기억 속엔...

사진 속 환히 웃는 엄마와 여민의 모습을 본다.

S#11. 집 / 밤

집에 돌아온 여민. 닷새사진관에서 찍은 사진을 사진첩 속에 넣으려고 서랍을 연다. 뒤적거리며 사진첩을 찾는 여민. 먼지로 덮인 사진첩 밑엔 소포 하나가 있다. 소포를 열어내고, 사진첩을 가지고 가려다, 소포 속 닷새사진관 이름이 적혀있는 것을 보고 손을 멈춘다. 멈춘 손은 소포로 향한다. 소포를 여민 의문의 사진 몇 장이 들어있다. 그 사진은 '닷새사진관'에서 촬영한 사진이다. 사진 속엔 여민과 엄마의 모습이 가득하다.

첫 번째 장, 여민의 사진으로 가득한 앨범을 보며 웃는 엄마.

(NAR) 엄마: 하루,

두 번째 장, 여민이 처음 교복을 입은 날.

(NAR) 엄마: 이틀,

세 번째 장, 학사모를 쓴 여민과 밝게 웃는 엄마.

(NAR) 엄마: 사흘,

네 번째 장, 엄마께 식사를 대접하는 여민의 모습.

(NAR) 엄마: 나흘

여민의 눈을 따라온 사진 하단엔 "당신의 기억 속 순간을 기록합니다, 닷새사진관."이란 문구가 적혀있다.

검은 화면.

S#12. 사진관 / 오후

(검은 화면 V.O)

직원: 찍겠습니다!

엄마: 아, 잠깐만요! (머리를 다듬으며)

엄마가 머리를 다듬으며 직원에게 미안한 듯 웃어보인다.

직원: 네~ 이제 준비되셨나요?

엄마: 네!

직원: 하나, 둘, 셋!

미소를 띤 채로 웃는 엄마의 모습이 '찰칵' 소리와 함께 찍히며, 웃고 있는 여민의 모습으로 오버랩된다.

찰칵 소리와 함께 엔딩 크레딧.

로그라인

엄마와 이별한 후, 무의미한 삶을 살던 '여민'이 조금은 이상하지만 특별한 '닷새사진관'의 초대를 받게 되면서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이야기